

## 25시를 뛰는 사람들

TV프로그램 중에 '우정의 무대'라는 것이 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외칠 때면 우리는 왠지 눈물이 핑돌을 느낀다. 모성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됨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25시를 뛰는 사람들 중에 아픔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만큼 그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 애착이 강할 수록 그들의 열정은 빛을 발한다. 자신의 일이 인생을 변화시켰다면 그것이 곧 그의 천직임이 분명할 것이다.

# 앞만 보고 달려가는 군산 '이성당' 이성열 기술차장



“목욕탕 때밀이를 해도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구요? 전 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가 살아온 36년의 삶, 한마디로 고통과 방황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느껴지는 첫 인상은 긴 겨울의 동면에서 깨어나 향긋하게 훑날리는 봄기운의 생동감, 그것이다.

삶의 진한 향기가 배어 나오는 사람, 그러나 망각의 강을 건너기에는 너무나 커져 버린 응어리를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듯, 그의 눈빛이 말해 주고 있다.

### 여섯살 때 어머니를 잃고

한창 어리광을 부릴 여섯살, 산후조리를 잘못된 탓에 병을 얻은 그의 어머니, 어느 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는 하얀 천을 머리 끝까지 덮고 반듯하게 누워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된다.

“당시 전 너무 어려서 서럽게 울 줄도 몰랐고, 좀더 철이 들어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머니를 위해 통곡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 여섯 형제 중 막내였고, 그저 집만 먹고 조용히 있었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평탄치 못했다. 열살때 계모 슬하에서 자란 그는 반항적 기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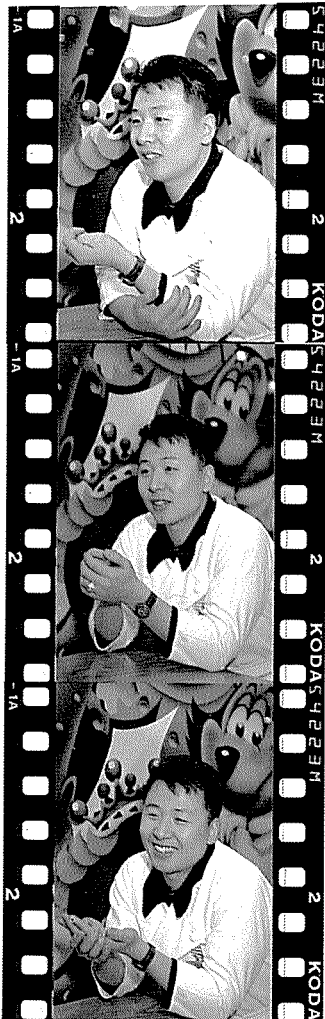
을 키워 나간다. 학창시절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싸움을 일삼으며 공부는 뒷전이다. 가수가 되려는 꿈도 꺾 났고, 가슴의 응어리를 풀 길이 없어 권투를 시작해 보기도 한다. 그저 누군가에게 진탕 맞아 보고 싶었다.

그는 80년 5·18 민주 항쟁을 그가 태어나고 자란 광주에서 직접 겪는다. 당시 그의 나이 스무살, 외사촌 누님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러나 세월의 편린 탓인지 아니면 끊임 없는 모정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제과점 일이 그의 마음을 잡아 주지는 못한다. 결국,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듯 그는 서울로 향한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현실은 암흑일 뿐 그 어느 것도 보장해 줄 수는 없었다.

### 나를 변화시킨 눈물 한 방울

스물 다섯살 되던 해, 결국 광주로 귀향, 그의 방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셋째 형님의 소개로 지금의 군산 '이성당'에 입신하게 된다. 그러나 입사초기 그에 대한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탓에 그저 좌충우돌할 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과거 탓이리라. 그가 이성당에 안착하기까지는



저의 6년의 기간이 걸린다.

“한편으로는 지나간 세월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성당에서의 6년은 저에게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격하고 성실한 선배들을 접하면서 저의 삶에 대해 반성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었던 그가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때도 이 시기다. 한번은, 무언가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던 차에 그만 간염에 걸리고 만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병치료를 위해 잠시 이성당을 떠나게 된다.

“그날 제방에서 짐을 다꾸리고 이성당 식구들에게 인사하려던 차에 방안에 혼자 울고 계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떠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는 저의 모습이 그렇게도 서글프셨나 봅니다. 순간, 나를 위해 울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무언가 왈각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바로 이성당 1대 사장 조천호 씨의 부인인 오남례(63) 여사다. 그녀의 어머니와도 같은 자상함은 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의 늦장가도 오남례 씨의 역할이 컸다. 결혼 준비부터 모든 것을, 마치 어머니처럼 일일이 챙겨 주었다. 그녀의 사랑이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오남례 씨는 이미 어머니나 다름없다. 그의 변화는 곧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다. 그는 아주 소박하지만 고귀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이 꿈

그는 이제 세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려 한다. 이성당에서의 그의 일은 주로 기술 연구이다. 그래서 직함도 기술 차장이다. 또한 생산관리, 자재관리가 그의 주 임무이기도 하다. 이성당에서 일한 지가 올해로 11년째 된다. 그는 배움에 몸을 아끼지 않는다. 기술 세미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업계의 이름난 선배들을 찾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는 지식을 주워담는 녀머주이고자 한다. 술독이 아닌 기술독이 그에게 어울릴 지도 모른다. 주위에서

그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기로 평이 나있다. 어떤 이는 그가 집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에게는 큰 보물이 있다.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각종 일본 전문 서적과 기술 이론서들이 그것이다. 연구실의 조그만 책상에서 그의 빵지도가 그려진다.

그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기본이 충실해야 함이다.

새로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때로는 성실한 후배로서 혹은 존경받는 선배로서 살아가자 한다. 또한 자신을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돈키호테’라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나폴레옹의 콕지원 과장을 유별나게 존경한다.



그의 조그만 책상에서 빵지도가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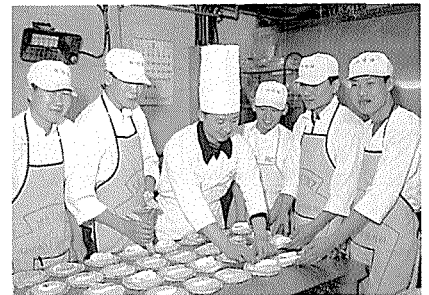
“곽선배님의 세상을 열심히 사는 열정, 돈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 그분의 살아가는 방식이 저의 인생 나침반이죠. 그분을 만나면 배우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집념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후배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간혹, 이 업계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쉽사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이 길이 꼭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는 곧 일본 연수를 떠날 계획이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에 나가 그쪽 제빵업계의 신 기술과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을 배우고다. 군산에도 얼마 않았으면 거대 식품 유통업체들이 들어선다고 한다. 또한 각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시장공략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경

쟁력 높이기’는 급선무인 것이다. 기득권 세력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측불허인 시장 판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맛의 차별화, 친절한 서비스 정신, 노사간의 신뢰회복 등이 선행되어야만 베이커리 업계의 앞날이 밝다고 말한다.


### 선배의 격려 한마디가 후배에겐 큰 용기

그에게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후배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선배가 많았으면 하는 것이다. 어느 자리에서 만나건 “야 너 반갑다.” 이런 말 한번쯤은 해줄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선배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런 것들이 후배들에게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큰 용기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선배의 말 한마디가 후배에겐 큰 용기.

그는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이 한 만큼만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냥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를 얻기 위해, 그것을 내 자신이 찾아 먹어야 하며 때로는 손해도 보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자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 말한다.

세상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것인지도 모른다.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결혼한지 꼭 1년 된다는 이성열 씨, 중매로 만난 목포 아가씨께서 귀여운 2세 하나만 낳아 준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해맑게 웃음 짓는 그를 바라보며 ‘우리네 사는 것이 다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상념이 발길을 돌리는 기자의 얼굴에 한없는 미소를 머금게 한다. 

(글/강영주)